



코스피	2114.35 (-17.58)	코스닥	708.63 (-0.83)
금리 (미국 3년)	1.91 (-0.01)	환율 (원/달러)	1105.30 (-5.40) (4일)



[뉴스]
저금리 파티 끝났다
버블과 함께 뱅 터지는
갭투자자-강동전세
02

49세 총수시대... 4대그룹 화두는 '조용한 혁신'

〈오너평균 연령〉

재계 이달까지 인사 마무리 LG그룹 임원 대부분 유임 등 안정 경영 속 혁신에 방점 조직개편 통해 4차산업 대비

재계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개혁 드라이브에 한창이다. 수시로 단행되는 조직 개편과 인사를 놓고 명분보다는 실리에 초점을 맞추면서다.

경영 세대교체가 만든 분위기가 최근 주요 그룹은 오너 3·4세 경영체제로 전환을 마무리 짓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4개 대기업 그룹 총수는 평균나이가 49세에 불과하다.

◆ 경영 안정에 방점

4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은 이달까지 2019년 정기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LG그룹은 인사를 발표했고, 삼성 전자계열사와 SK가 6일을 전후해 인사를 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도 이달 중 정기 인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세대' 총수가 운영하게된 그룹사들은 안정을 중심 과제로 삼는 경향이 뚜렷하다. 올해 처음 '구광모 체제'에 돌입한 LG는 지

달달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단을 대부분 유임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40세에 불과한 만큼 세대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국 선대 회장 사람들을 대부분 남기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최근 삼성 금융계열사는 5개 계열사 최고경영자를 모두 유지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전자계열사도 사장단 평균 임기가 3년에 가까운 상황, 내년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K그룹도 최고경영진을 대폭 교체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만은 다소 다른 분위기다. 올 초 사장단을 대부분 50대로 개편했고, 정이선 수석부회장이 취임한 후인 11월에도 해외 부문 인사를 대폭 물갈이했다. 정기 인사에서도 적지 않은 임원 인사가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차 그룹은 임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부여해왔다"며 "역성장 늪에 빠지면서 쇠신 노력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실무 중심 혁신

또다른 변화는 혁신이다. 그룹사들은 위로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아래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LG는 미래먹거리를 정조준한 조직개편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CEO 직속 로봇사업센터와 자율주행사업Task를 신설하고, 융복합사업개발센터를 부문으로 승격시키는 것 등을 통해서다.

삼성전자도 작년에 인공지능 연구조직 'AI센터'를 새로 만들면서 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올해에는 DS부문에 속한 전장사업팀을 확대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SK도 최근 SK네트웍스가 AJ센터 카를 인수하는 등 모빌리티 사업에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그룹 전장사업을 통합 지휘할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도 큰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외 권역본부 체제 정비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새로운 지배구조개편안도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래차 분야에서 쇠신을 단행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기상위성 '천리안 2A' 발사 임박

4일 오전(한국시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천리안 2A호를 탑재한 아리안5ECA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돼 있다. 천리안2A호는 천리안 1호의 임무를 물려받은 기상 관측 위성으로 한반도 및 주변 기상과 우주 기상을 상시 관측한다. 발사는 오는 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

투자·소비 부진한데 물가는 오르고

성장 계걸음... 동력 식었다

3분기 GDP 성장률 0.6%
2분기 연속 0%대 머물러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남은 4분기에는 0.84~1.21% 성장해야 한국은행이 목표한 2.7%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투자와 소비가 모두 부진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경제 심리지수는 하락하고 있어 사실상 경제 동력이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조197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경제성장세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0.2%)을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1.0%로 증가했으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0.6%로 내려앉으며 0%대 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모양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2.0%)로는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한은이 목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84~1.21% 성장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4분기 실적표는 2, 3분기보다는 더 좋아야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은은 2.7% 달성이 불가능한



/유투이미지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7~8월 폭염과 6월 지방선거로 미뤄진 재정지출이 4분기에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유류세 인하 정책 등 내수활성화정책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하방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상방 요인도 많이 있다"며 "정부 지출이 다시 늘어나고 유류세 인하, 입국자수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2.7% 성장률에 대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을 2.8~2.9%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는 부진하고 소비심리는 얼어붙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고용부진 등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출항목별로 속보치와 비교하면 설비투자가 0.3%포인트 개선됐으나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는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하락조정됐다. 건설·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2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구매력도 줄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기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2009년 1분기(-3.1%) 이후 거의 10년 만의 감소세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소득 등을 합친 것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심리는 2개월 연속 악화됐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0(기준치 100)으로 작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 10월 99.5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치 100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기준치 100 이하인 73을 기록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2개월 이상 연속 2%대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7~9월 2%대 상승을 보인 이후 14개월 만이다. **〈3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89@



구광모 LG 회장은 1978년생으로 40세에 불과하다. 사이언스파크를 둘러보는 구 회장 /LG



최태원 SK 회장은 38세인 1998년 회장직을 맡아 아직 50대 젊은 총수다. 지난날 프로야구 시리즈를 관람하는 최 회장. /뉴스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현대차 잠정 합의

임금체계·노동시간 등 협상 6일째 최종 투자협약 체결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긴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백석광주경실련 대표 등 노사민정협의

회 위원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광주시와 현대차 간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경과를 보고받고, 선진노사관계에 관한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대한 공동 결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광주시는 4일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를 마치고 5일 최종 협상(안)의 노사민정 공동결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와 최종 협상에 나서 투자 협상

을 마무리하고 6일째 투자협약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투자 조인식에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것을 토대로 현대차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해 속도를 낸 끝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협약서에는 광주시가 법인 자본금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590억원)를 부담해 신설하는 독립법인에 현대자동차가 19%(53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봉태형 기자 bcy2020@